

나이팅게일과 생명관

김 분 실

(이대 부속병원 간호부장)

— 목 차 —

- I. 서 론
- II. 본 론
 - 1. 나이팅게일의 생명관
 - 2. 생명관의 독자성
- III. 결 론

I. 서 론

“나이팅게일과 생명관”이란 제목으로 강연을 부탁받고 머리 속에 떠오르는 것은 환자를 위해 희생과 봉사를 아끼지 않은 영국의 귀부인이라는 점과 그분의 후계자들인 영국 간호원들의 학문 쪽, 이론의 발달보다는 실제 환자간호에 더 집중되어 있다는 점 외에는 알고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느끼면서 너무 힘겨운 것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참고문헌을 가지고 계신다는 홍보위원장님의 말씀을 듣고 몇 주간 나이팅게일에 관한 문헌을 가지고 공부하면서 너무나도 큰 것을 배웠다는 점을 고백하고 싶다. 그러면서 이 나이팅게일에 관한 내용을 종합해 보겠다.

간호학책 중에는 나이팅게일만을 소개한 책은 없지만 부분적으로라도 한번쯤은 나이팅게일의 이야기를 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문헌을 읽으면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알 수 있었다.

첫째로 귀족 출신의 나이팅게일은 소녀 시절부터 부귀와 평안만을 생각치 않고 생명이 있는 것(개나 고양이까지도)은 무엇이든지 관심이 컸다는 점과, 둘째로는 크림리아 전쟁 당시 중상을 입고 희생과 봉사의 마음으로 군인을 돌보아 준 그 마음과, 셋째로는 대단히 희귀한 인격자요써, 다방면에 지식이 많으며 문제를 해결하는 투지력이나 박력은 남성도 따라가기가 어려웠다

는 점이다.

흔히 근대의 간호가 나이팅게일부터 시작하였다고는 하지만 그 본의 뜻, 즉 위의 세 가지를 다 실감있게 느끼고 받아들여 행하려는 간호원은 적은 것 같다.



그래서 국제간호원의 날을 맞이하여 나이팅게일의 생명관을 문헌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II. 본 론

1. 나이팅게일의 생명관

1) 나이팅게일의 생명관의 기본은 개체다.

근대 간호학의 연구자이며 1820년부터 1910년대를 지낸 Florence Nightingale과 같은 시대를 같은 근대 의학의 선구자인 Rudolph Welch(1821—1902)의 생명관을 비교해 보므로써 나이팅게일의 생명관을 좀 더 자세히 밝혀려고 한다.

Rudolph Welch는 1858년 세균 병리학을 저술하여 근대 의학의 방향을 결정지어 주었고 이 책의 중요성도 널리 인정되었다. 이 Welch는 생물의 생명 단위를 세포라고 보았고 여기에서 생긴 질병의 병리를 통해 생물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고 보았고 고치라 할지라도 다수의 세포가 모인 것에 불과하다고 하였다. 병이란 많은 세포중에서 어느 세포에 기생하는 현상을 말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치르는 세포의 변화 과정을 집중적으로 해결할 때 가장 정확하고 효과되는 치료가 되어 환자가 잘 회복한다고 하였다. 즉, Welch의 생명관은 물리학적으로 자연을 보는 데 흥미를 가졌고 세포 중심의 생명관인 오늘날의 의학을 전문화시키고 세분화시켰다고 본다.

한편 Florence Nightingale은 1859년 “간호에 관한 일들(Notes on Nursing)”이라는 책을 내면서 이것이 근대 간호학의 초석을 이루었다고 본다. 이 문헌을 통해 보면 나이팅게일은 제일 먼저 생명의 단위를 개체를 중심으로 하여 전개하였다. 즉 Welch와는 달리 병이란 세포 일부에 기생하는 것이 아니고 개체 전체에 기생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래서 “환자의 간호는 거의가 이해되지 않고 있다”라는 제목에서 개체의 이해를 중요하게 다루었다. 또한 질병은 그 개체에 생명력이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병이란 개체가 손상을 받고 있는 상태가 아니고 개체가 회복을 향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았고 그러므로 그의 저서에서는 “병은 회복과정이다”라는 제목으로 이를 설명하고 있으며 또한 흔히 병과 고통이 병행하는 것으로 생각되지만 이 고통의 원인이 꼭 병으로 인한 것

만은 아니라고 이야기하면서 개체의 전부를 중요시했고 이 점을 생각치 않으면 환자의 간호가 이해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2) 두번째 단계는 환경이다.

개체에서 더 나아가서 환자와 환자 사이를 구성하는 환경 속의 활동을 중요시하였다. 이렇게 나이팅게일의 생명관은 몸의 일부에 있는 것이 아니고 몸 전체에 있었고 더 나아가서는 환경으로 보았기 때문에 이 분의 의학이 아닌 간호학을 택하게 되었다고 본다. 그래서 그의 저서에서는 환기, 난방문제, 집구조와 환자와 관련된 문제, 창문 여는 법, 발꿈의 공기 등에 관해서, 심지어는 간호원이 병실을 드나들 때의 태도가 환자에게 주는 영향을 통해서 간호원의 제일 원칙이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말하였다.

여기서 나이팅게일의 생명관이 왜 환경에 있었다고 보았는지를 살펴보자.

우선 생명 단위를 집으로 보았다. 즉, 개체가 아프다 또는 환자가 생겼다라고 했을 때 이는 그 개체 하나만이 앓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가 살고 있는 집이 앓고 있다고 보았고, 반대로 이 생명의 단위인 집이 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병의 변화가 기생하여 환자가 생긴다고 하였다. 이 이야기는 건강을 좌우할 수 있는 인간 생활의 대부분이 가정에서 영위된다는 것이다. 또한 건강에 관한 지식이 많고 이를 잘 실천하는 가정에서는 질병이 없다고 보았다. 이와 같이 건강한 가정을 무엇보다도 중요한 생명의 단위로 생각하고 이 생명을 지키고 길러나가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최선의 수단이 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러한 가정 중에서도 근거 있게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 남성보다는 여성, 여성 중에서도 주부라고 보았다. 이러한 관점에서 그의 생명관은 다시 농촌 주부들에게로 확대되었다. 즉, 생명의 단위가 개체에서 집으로, 집에서 더 큰 단위인 읍이나 면단위로 갔다. 그곳에서 농촌의 생활을 동경하고 교육을 시작했다. 이것은 나이팅게일이 읍이나 면을 하나의 생명을 가진 단위로 받아들여 인간의 생명과 건강과 질병을 가진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의 저서에서 “읍·면에 있어서의 건강 교육”이라든가 “농촌위생”과 같은 저서를 남기게 되었으며 이것이 오늘날의 지역사회 간호학의 기틀을 만들었다고 생각한다.

3) 셋째 단계는 민족이다.

이 분의 또 다른 생명 단위가 민족이나 국가라는 단



위였다. 크리미아 전쟁시 밤이면 하루도 빼놓지 않고 환자를 순회하며 볼볼 수 있는 희생과 봉사의 마음은 나이팅게일의 생명 단위를 민족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또 다른 예로 군대의 부정 부패를 해결하는데 자신의 생명까지도 위협을 받으면서도 박력있는 태도로 요령 있게 투쟁할 수 있었다. 또한 크리미아 전쟁시 그가 간호원의 총 책임자로 있을 때 수녀 간호원과 영국 주교자 간호원 두 종류의 간호원과 같이 간호를 했을 때 수녀 간호원은 육신은 더럽더라도 영혼에 관심을 가진 간호를 하였으며 영국 주교자 간호원은 환자를 간호하면서도 환자와 간호원 자신을 별개의 것으로 보았다. 이때 책임자로서의 나이팅게일은 두 종류의 간호를 다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간호원의 마음과 육신이 환자와 같이 있으면서 간호하는 소위 "with the patient"를 그 때부터 주장하였다. 또한 저서를 통해 환자를 필요 이상으로 돌보는 것이 오히려 환자에게 해롭다는 이야기를 주장했다. 이 모든 것이 나이팅게일이 국가나 민족을 생명단위로 보았다는 결과라 생각할다.

4) 마지막 단계는 인류다.

영국의 식민지였던 인도에서 그녀는 의·식·주 문제는 물론 상하수도 문제, 토지문제, 고리대금문제 등을 연구하여 인도 총독에게 보고하였다고 한다. 이와 같이 자기 민족이 아닌 타국의 문제점을 다루었다는 것은 한 간호원으로써 아픈 사람만을 대상으로 생명관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인류를 중요시 보아 인류 복지에 그의 생명관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2. 생명관의 독자성

나이팅게일의 생명관에 대한 독자성을 살펴보면 그

분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고 병리 양상에 따라 생명단위를 포착하는 방법이라 하겠다. 즉, 생명단위를 개체에서 인류까지를 변화시켜가면서 거거서 오는 판단과 병리 양상을 조화시켜 나가는데 그의 독자성이 있다고 본다. 즉, 병의 양상이 상한 세포에 있는지, 또는

개체에 있는지, 집에 있는지를 계속 관찰하면서 필요한 단위의 생명체를 자유자재로 왔다갔다하면서 "생명의 평등"을 항상 마음 속에 두고 일생을 보낸 분이라 생각한다.

III. 결 론

이렇게 볼 때 나이팅게일의 생명단위는 개체에서 집으로, 집에서 읍, 면으로, 읍, 면에서 국가로, 국가에서 인류로, 즉 점점 더 큰 단위로 갔는데 비해 Welch는 기관에서 조직으로, 조직에서 세포로, 세포에서 분자로, 즉 점점 더 작은 단위로 간 것이 두 사람의 생명관의 큰 차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나이팅게일의 생명단위가 Welch의 생명단위와 큰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포 중심의 의학적인 판단이나 치료처치를 경시하거나 무시하지는 않았다는 사실을 저서를 통해 느낄 수 있었다. 즉 이 분의 저서 중에는 의사의 말을 존중해야 하는데 반드시 주체성을 가지고 간호원이 판단과 활동을 하면서 존중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나이팅게일의 생명관이 다양하면서도 독자성이 있었고 질병자체를 자연히 회복되는 과정으로 보았으므로 이 과정을 방해하지 않도록 유지하는 것이 간호라고 했다.

결론으로 그 분은 세포에 생긴 변화를 근거있게 터득함과 동시에 그 개체 전부를 어김없이 관찰하여 그 개체의 생활장소인 집, 읍, 면, 사회, 국가를 연결시켜보르르켜 병의 양상을 생명이 있는 그 모양 그대로 볼 수 있었고 이것이 바로 나이팅게일의 생명관이라 하겠다.

<40페이지에 계속>

다 자신이 괴로움을 당하는 것이 훨씬 낫다. 그들과 마음이 통하는 길만 찾으면 자기의 소신은 그들과 함께 실현될 것이다. 별로 의식도 안하고 압력도 느끼지 않는 권위야말로 가장 완벽한 권위인 것이다.

2. 권위는 책임이나 지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개인적 특성에서 나온다. 권위는 내세우는 것이 아니고 행사하는 것이다.

3. 남의 일을 비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무지와 동거하는 사람이다.

4. 가장 잘 다스리는 사람은 가장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다.

5. 간호원장이나 수간호원은 일을 혼자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일을 나누어서 모두에게 행복감을 주기 위해서 존재한다.

6. 부하직원에게는 다정한 친구가 되어야 한다.

7. 지배욕이 없는 사람이 좋은 지배자가 될 수 있다.

8. 간호에 임했을 때 작은 일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자기 자신의 작은 일에 대해서는 소심하지 말 것이다.

Nightingale의 간호의 발상은 여성의 재발견과 인간의 건강을 위한 입장에서 사실에 대한 진실한 관찰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는 어떤 현상을 관찰할 때는 그 현상 뒤에 숨어 있는 문제를 예리하게 분석하고 해결 방안을 강구할 줄 알았으며 그의 사상은 단순한 간호행위에만 그치지 않고 항상 간호, 과학, 종교의 연결이었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Nightingale정신이란 무엇인가? Nightingale=백의의 천사] 또는 「Nightingale 정신=봉사와 희생정신」이라는 이미지가 일반화된 것이 우리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풍조처럼 유포되었음은 매우 유감스럽다. 사실 그의 정신은 다른 측면으로 발휘되었다. 즉 종교파벌이나 관료의식에 젖은 관료나 군의관들을 제쳐놓고 오로지 처참한 부상병의 버려진 인간성 회복을 위해 냉정한 지혜를 살려 강철같은 의지와 행동력으로 야전병원을 개척한 것이다. 크리미아 전쟁에서 그의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니었다. 그 후 그의 50년간의 업적에 대해서는 관심이 흐려지고 있으나 그의 크리미아 전쟁에서의 경험은 간호의 출발점에 불과했다. 그는 계속 영국 육군의 의료제도, 병원제도개혁, 병원건축, 건강교육, 인도에 있어서의 위생 문제에 대한 견해를 발표하는 등 놀라운 활동을 했다. 그는 자격있는 유능한 간호원에게 고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음을 보아 저임금, 무보수는 Nightingale 정신과는 무관함을 알 수 있다.

Nightingale은 현실을 직시한 합리주의로 문제를 타개하려 했고 구체적 내용으로 제안한 일이나 저서는 물론 유명잡지에 원고료 기고한 일 등을 보아 홍보활동에 매우 능란 여성이었음을 알 수 있다. 목적수행을 위해서는 일보도 양보 못하는 자주, 자립, 불굴의 정신과 천부의 자질을 겸비한 Nightingale은 당대에 보기 드문 도량이 큰 여성선각자였다.

<18페이지에서>

안전하고 만족감을 줄 수 있는 숙련된 기술이 필요한 것이다. 사람에게는 생활이 있고 환경이 있고 개개인의 개성이 있다. 간호를 전문으로 하는 직업인으로 그 본 바탕이 아무리 잘못되어 있다손 치더라도 우리가 상대해야 하는, 즉 간호해야 되는 대상은 정신과 육체에 병을 가진 대상이 아닌, 균형을 잃은 환자만큼 우리의 업

무는 양심껏 이행해 나가야 한다. 물론 어느 직장이나 사회에서 준수해야 할 도덕과 윤리가 있지만 간호원은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환영과 인정을 받는 직업여성 중 직업인이어야 한다. 나 스스로 조금은 바보스럽고 손해보는 입장에 있다손 치더라도 좀더 오래 늦게까지 남아 남을 사랑하는 인간이 되어보자고 다짐해 본다.

<36페이지에서>

이 뜻깊은 날을 맞이하여 3만여명이 넘는 한국 간호원 면허 소지자가 다 같이 생각할 것이 있다면 우리가 부끄럽고 있는 참간호가 마땅히 수행해야 할 바람직한 간호라고 생각하며 이 참간호에 나이팅게일의 생명관

을 덧붙여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직업의식보다는 생명이 있는 개체생명이 있는 집, 생명이 있는 읍, 면, 생명이 있는 국가, 생명이 있는 인류를 다루는 간호를 할 수 있는 참간호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